익산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익산역 앞 중앙동 일원 약 18만5000㎡ 사업대상지
2022년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270억원 투입

익산역 앞 원도심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본격 추진된다.

최근 익산시 김용주 건설교통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역사가문화로'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초 승인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5가지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후 중앙동 일원 원도심 지역에 대해 올해 5월 국토 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받았다.

익산역 앞 중앙동 일원 약 18만5,000㎡ 사업대상지에 2022년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150, 지방비 100, 공기업 20)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마중물사업으로 원도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기능 주민편의시설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 앵커시설인 창업지원 어울림 플랫폼을 핵심 거점 공간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익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각 사업별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계획이다.

김용주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정책이자 우리시 중점사업인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중앙동 일대 원도심 지역주민 및 상인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최근 익산시 김용주 건설교통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역사가문화로'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초 승인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 폭염대책 강화 지시

정헌율 익산시장이 여름휴가를 순연하며 폭염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간부공무원을 활용한 읍면동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영농작업장 및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폭염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시는 현재 긴급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농업인, 재난취약자에게 쿨토시 1,500개, 쿨방석 2,500개, 부채 5,000개, 구급약품 410개 등을 구입, 지원하고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와 도로 살수 구간을 확대해 폭염에 대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1일 박철웅 부시장은 영등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 등을 확인하고 선풍기 등을 전달하였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 어린이 숲속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접수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참가비 무료

군산시는 9월 1일 월명공원에서 개최되는 '군산 어린이 숲속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어린이와 가족들의 참가신청을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3㎞ 숲속 체험 마라톤으로 진행된다.

숲속 마라톤은 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월명공원 산책로를 따라 진행되며, 숲길 중간 중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완주하는 어린이에게는 완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라톤 구간별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부대행사로 장난감 나눔 부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숲속 마라톤 참가는 6~13세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군산시 어린이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child)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어린이 숲속 마라톤 대회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군산의 아름다운 명소인 월명공원을 다시 찾고,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는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열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전문가 특강

관내 5개 대학 · 30여개 공공기관 대상 시와 연계
일자리 사업 아이템 구체화 · 좋은 일자리 창출 협업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열고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사)캠틱종합기술원 일자리사업팀 이정화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산광역시, 순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타시군 일자리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도내 완주, 익산, 무주의 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각 부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부서별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시에서는 8월 중 부서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요사업 10여개를 선발해 향후 국비사업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걱정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내 5개 대학교와 3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협업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군산시와 관내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되는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더욱 구체화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공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항 활성화 위한 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항 5부두 항만관리실에서 항만 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등과 함께 군산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활성화협의회, 군산항만물류협회 등 항만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군산항 이용 시 불편했던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며, 군산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에서는 향후 항만관계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군산항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상생발전 · 농정혁신 등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익산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지난 31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과 세부추진계획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민선 7기 공약은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도시 민주화를 통한 시민 중심 도시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건설과 관련된 △KTX 역세권 복합타운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개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 및 2단계 사업 착수 △제3·4일반산업단지와 함열농공단지 분양 △100억이상 투자 우량기업 유치 등이다.

시는 앞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시기별로 구분하여 예산확보와 절차이행 등을 각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철웅 부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4년 동안 우리시를 이끌어 갈 핵심 사업들이며,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내실 있고 실천 가능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임기 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흥남동 홀몸 이웃 돌봄 사업 협약

군산시 흥남동(동장 김영섭)은 영광교회(담임목사 임용섭), 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황인걸)와 함께 돌봄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1일 '우리동네 홀몸 이웃 돌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동네 홀몸 이웃 돌봄 사업'은 홀몸 어르신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물품 제공 및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해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며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에게는 근로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고자 하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